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경말씀: 눅12:49-59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리는 것(행20:27), 경륜, 구원, 심판, 축복, 권면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동성애, 도덕의 타락, 가정의 붕괴, 이슬람, 종교통합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신다.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 있다: 영 분별(요일4:1), 옳고 그른 것,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긴다. 성경을 조명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제자들의 믿음 고백,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심(눅9:51)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심

오늘은 주님께서 때를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함

유대인들의 때 분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늘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는 날씨를 예측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올 줄로 알았다(54). 지중해, 갈멜 산 엘리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울 줄로 예측했고 그리 되었다(55).

예수님의 책망(56):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인 것을 모르냐? 엄청난 아이러니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포하였냐?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 메시아, 하나님의 긍휼, 회개, 믿음,
구원, 제자로서 인격의 변화, 말씀 보존, 지옥 불의 심판,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증명
결론: 너희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느냐?(57)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따라야 하지 않는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어느 때인가? 시대의 표적들, 옳은 것 판단, 행동

우리가 사는 이때

세상의 인구가 60억,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슬람: 16억, 힌두교: 10억, 불교: 5억,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 23억, 총 53억, 나머지 7억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2-3천만,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영연방 1천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600만 명, 과연 얼마나 될까? 전 세상의 기독교인 6천만 명 이하, 1% 이하
100명 가운데 1명이 구원받았을 것으로 추측됨.

2000년 동안 가장 널리 읽힌 책 성경, 가장 널리 선교: 기독교, 그런데 온 세상 인구의 1%가 구원
받은 사람(눅18:8)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눅17:22 이하),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이러한 때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아닌 사람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교 생활, 주일성수, 십일조, 행위, 봉사, 구약식 교회
이제는 이런 껍질을 벗어야 한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바르게 믿고 구원받아 바르게 전해야 한다.

1. 이스라엘의 부활: 1948년 5월, AD 70년 이후 1900년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저 팔레스타
인 땅에 돌아옴.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여러 차례 침공하였으나 곳곳이 주권을 지키고 있다.

1967년 6월 5일, 6일 전쟁,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웨스트뱅크(예루살렘 탈환),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한 병사,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 이들이 모두 손을 들고 항복, 그들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감, 이집트 장교들에게 물음, “그 병사의 뒤에는 총을 든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항복하였다.”, 당해내지 못한다(수23:10), 슥12:1-3,

지금 제3 성전의 완공이 눈앞에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된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다 헛것이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

2. 이슬람의 확장: 100년 전에는 중동 국가들이 빈곤을 면치 못함, 그런데 1908년 5월 26일 페르시아
남부 사막에서 시꺼먼 기름 한 줄기가 솟아올랐고 그 뒤 탐사를 통해 그 지역이 석유 매장량이 많음을
발견함, 현재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5%, 이슬람은 천대받는 종교, 서방 사회에 진출하지 못함.

그러나 석유의 발견과 더불어 중동은 강대국들의 각축장, 결국 이슬람교가 수출되기 시작 현재 영국은 이슬람의 확장으로 인해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다. 런던의 경우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등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무함마드이다. 이민, 다산, 결혼, 개종을 통해 이슬람은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무서운 종교 확산 이슬람은 무력을 정당화는 사악한 종교 체제,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 유럽을 정복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슬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갔지만 불신 상태이다. 에스겔서 37-39장에 있듯이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슬람의 부흥 역시 성경에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미래는 없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이스라엘 침공(2, 러시아), 이때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 아랍 군대, 도갈마(터키)(5-6),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들을 땅에서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겔39:12). 모두가 새들의 밥이 된다(39:17).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강림하실 때에 반 이스라엘 국가들은 순식간에 멸절되고 만다(슌14:4, 12).

이슬람의 부흥, 시대의 징조이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한다.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 이슬람 과격 세력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통령 바른 판단, 필요하면 서명

3. 경계의 한계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행17:26). 그 이유, 사람이 모이면 항상 주님을 대적한다(27), 바벨 탑 등의 사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문화가 융합되어 바벨탑으로 돌아가고 있다.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성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 국제결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던 세계적인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 이민 거부, 종교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영, 이제는 그들의 종교를 바꿀 자신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무장해야 한다.

4. 극심한 빈부 격차(약5:1-6): 대륙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지방끼리, 가족끼리, 양극화 현상

5. 적그리스도의 도래: 결국 온 인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통치자를 바라보게 된다(이스라엘,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등 모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평화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속이고(단8:25) 전 세상을 속이고 7년 동안 이 땅을 마귀의 권세로 치리한다. 살후5:3,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바르게 깨어서 살아야 한다.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성경 붕괴, 도덕 붕괴, 동성애, 진리 거부 등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심(눅2:4), 천사들의 외침, 하늘에는 영광

그러나 그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재림),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거부함 오히려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 붙고 분쟁이 생긴다(49). 분열이 생긴다(51).

예수님만 들어가면 심지어 가족 안에서 분열(52-53). 진리가 들어가면 오류, 우상이 견디지 못함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리하는 일이 생긴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이것은 진리의 분쟁이다. 인격이 못돼서 욕을 먹으면 안 된다. 다만 좋은 인격을 갖고 진리 수호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면 고통 감내, 심지어 예수님도 고통 받음(50), 십자가 사건의 모욕, 고통, 죽음 진리를 수호하던 자들이 지금까지 고통당하였다. 그리고 그 반열에 끼어야 한다(히12:2).

이때에 꼭 생각할 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마귀의 자식들, 중생 전에는 지옥 행 운명 주님의 권고(58-59), 누구라도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느냐?

사람도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그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폭우가 예상되면 방비해야 한다. 변호사를 사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우가 온다. 우리를 구원해 줄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요일2:1-2). 때를 분별하고 기도하자.